

## 의치 환자의 구강상태와 자가관리 인식 및 주관적 저작능력이 의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숙정, 정인호\*, 김병식\*\*, 박영대\*\*\*, 이동건\*\*\*\*, 박지영\*\*\*\*\*, 황혜경\*\*\*\*\*, 이종화\*  
 김천대학교 치위생학과,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수성대학교 치기공과\*\*,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대구보건대학교 보건의료전산과\*\*\*\*, 대구보건대학교 치위생과\*\*\*\*\*,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 Oral health and self-management recognition of patients with dentures and subjective work ability effect of denture satisfaction

Sook-Jeong Lee, In-Ho Jeong\*, Byung-Sik Kim\*\*, Young-Dae Park\*\*\*,  
 Dong-Geon Lee\*\*\*\*, Ji-Young park\*\*\*\*\*, Hye-Kyung Hwang\*\*\*\*\*, Jong-Hwa Le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imcheon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Gimcheon University\*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Suseong College\*\*, Departmen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Department of Medical Computer Science, Daegu Health Colleg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aegu Health College\*\*\*\*\*  
 Department of Ophthalmic Optics, Daegu Health College\*\*\*\*\*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elf management and subjective chewing ability and provide the basic information to research of healthy life of old people from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method for dental health of denture patient.

**Methods:** From 15th or August to 15th of September in Daegu and Gyeong-buk, denture patients were targeted for a survey. Data from 295 people were analyzed.

**Results:** Adjusted R<sup>2</sup> of oral health and denture satisfaction of an object of study increased to 24.9%(F=20.460, p<.001). Adjusted R<sup>2</sup> of denture custody and method of sterilization was 37.8% and Adjusted R<sup>2</sup> of recognition denture satisfaction of chewing effect was 14.4% which affect to most(F=9.274, p<.001).

**Conclusion:** In conclusion denture condition, denture custody, method of sterilization, chewing effect influence oral health, healthy life of patients who have denture.

○Key words : partial dentures, satisfaction, self-management recognition, chewing ability, denture

교신저자	성명	이종화	전화	054-420-4052	E-mail	hwa00700@hanmail.net	
	주소	경북 김천시 삼락동 754번지 김천대학교 치기공학과					
접수일	2013. 9. 11		수정일	2013. 11. 29		확정일	2013. 12. 17

## I. 서 론

2000년 이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1%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고, 2017년에는 이 비율이 14%가 되어 고령 사회에 도달하며, 2026년에는 20.8%가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0).

이와 같이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이 노인문제의 중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 문제 가운데 특히 노인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구강 보건적 측면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영양섭취, 소화와 삶의 연속성과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원영순, 2003).

특히, 노인의 건강은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기본이며, 전체 건강 중 가장 중요한 축이 된다 할 수 있으며, 구강건강 증진은 각 개인의 전신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권현숙, 2007)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있어서 구강건강은 전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 국민은 나이가 증가 할수록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60세 이상 인구의 64.5%는 다른 어떤 건강문제보다도 구강건강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노인에서 이미 많은 수의 치아가 상실되거나 치아관련 질환 때문에 음식물 섭취라는 생명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성정희, 2004).

따라서, 구강질환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해 치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상실하게 되면 개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건강 및 구강건강을 유지 하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음식섭취에 많은 제약이 따르면서 식사의 양과 질이 떨어지고 저작능력이 저하되며, 영양섭취가 잘 되지 않아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고 외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및 대인관계에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못하여 사회적 소외감과 고립을 촉진 시킬 수 있다(김설희 등, 2004).

이에, 노인의 정신적 사회적 안정과 건강은 편안한 신체 활동과 반드시 알맞은 구강건강의 저작 활동이 필수적이며, 저작능력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감소는 노인의 식생활 및 사회활동의 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상실된 치아는 저작효능 및 소화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여 심각한 영양결핍과 사회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실치아 복원에 대표적인 의치장착 환자의 구강상태와 자가관리 인식 및 주관적 저작능력의 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의치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향후 의치 환자들의 자가관리 인식에 대한 기초자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조사는 대구·경북 지역의 의치장착 환자를 대상으로 2012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면접을 통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에게 사전지도를 받은 연구보조원이 치과, 노인복지관, 요양원, 경로당을 방문하여 의치를 장착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해시킨 후 일문일답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320부 배부하여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를 제외한 295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2. 조사도구와 내용

조사도구는 원영순(2003), 유상희(2008), 최윤화(2008) 등의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내용의 신뢰도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확정하였고, 설문지의 문항에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구강상태, 자가관리 인식, 주관적 저작능력, 의치만족도 등 총 2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치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척도는 '담당 진료진의 의학적 수준을 어느 정도 만족 하는가', '의치장착 후 구강 내 상태에 효과가 있었다', '의치장착 방법에 대해 납득 할 수 있는 설명이 있었다', '의치장착 환자가 불편을 느꼈을 때 의료진이 성의 있게 대처해 준다', '의료진이 가지고 있는 의치관리 장비에 대해 만족했다', '직원이 의치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다', '의치장착 보철물에 어느 정도 만족 하는가', '의치장착 보철물비용에 어느 정도 만족 하는가' 등 8개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0.916으로

나타나 문항 없이 모두 사용하였다.

### 3.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분석에는 SPSS Win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으로는 의치만족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과 의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강상태 및 인식, 의치 보관 실태와 멸균방법, 저작효과에 대한 인식 등은 가변수(dummy variables)로 변환하여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II. 결 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59.0%, '남자'가 41.0%로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70~74세'가 42.7%, 학력은 '초등졸'이 58.3%, 직업은 '무직'이 72.2%,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71.2%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료비 부담자는 '본인'인 경우가 64.1%, 상악 잔존 치아수는 '4~6개' 37.3%, 하악 잔존 치아수는 '4~6개' 44.7%, 저작효과 기대는 '아주 좋아진다'가 49.8%, 지난 1년간 치과방문수의 경우에는 '1회' 방문수가 55.9%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Classification	Item	N	%
Gender	male	121	41.0
	female	174	59.0
Age	<65	9	3.1
	65-69	55	18.6
	70-74	126	42.7
	≥75	105	35.6
Education	elementary	172	58.3
	middle	67	22.7
	high	39	13.2
	≥College	17	5.8
Occupation	disemployed	213	72.2
	have a vocation	47	15.9
	part time	35	11.9
Average monthly earnings (won)	<1,000,000	210	71.2
	1,000,000-(<2,000,000	64	21.7
	≥2,000,000	21	7.1
Medical fee	personal	189	64.1
	spouse	47	15.9
	offspring	59	20.0

Classification	Item	N	%
Maxillary survival teeth	no teeth	25	8.5
	1-3	41	13.9
	4-6	110	37.3
	7-9	100	33.9
	≥10	19	6.4
Mandibular survival teeth	no teeth	34	11.5
	1-3	42	14.2
	4-6	132	44.7
	7-9	79	26.8
	≥10	8	2.7
Expect the effects of chewing	Have never played	2	.7
	marginal difference	3	1.0
	little better	28	9.5
	improve	115	39.0
	very improve	147	49.8
Annual dental visits	1	165	55.9
	2	106	35.9
	≥3	24	8.1
Total		295	100

## 2. 구강상태와 자가관리 인식 및 주관적 저작능력과 의치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

구강상태와 자가관리 인식 및 주관적 저작능력이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가 다중공선성의 기준인  $r=0.80$  미만이었고 분산팽창계수는 1.00-1083, Durbin-Watson 계수는 1.042이므로 독립변수 간에 자기회귀 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의치 장착 후 저작효과 기대에서 '아주 좋아진다', 하악 잔존 치아수 '7-9개', 하악 잔존 치아수 '10개이상', 상악 잔존 치아수 '10개이상', 상악 잔존 치아수 '7-9개' 등이 의치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의치 장착 후 저작효과 기대에서 '아주 좋아진다' ( $\beta=.369, p<.001$ )가 의치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13.3%로 나타나 의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F=46.102, p<.001$ )(Table 2).

2단계에서 의치 장착 후 저작효과 기대에서 '아주 좋아진다' ( $\beta=.366, p<.001$ )와 하악 잔존 치아수 '7-9개' ( $\beta=.240, p<.001$ )가 의치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함께 투입된 결과 그 설명력은 18.8%로 증가하였다 ( $F=35.046, p<.001$ ).

3단계에서 의치 장착 후 저작효과 기대에서 '아주 좋아진다' ( $\beta=.340, p<.001$ )와 하악 잔존 치아수 '7-9개' ( $\beta=.261, p<.001$ ), 하악 잔존 치아수 '10개이상' ( $\beta=.207, p<.001$ )이 의치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함께 투입된 결과 그 설명력은 22.8%로 증가하였다 ( $F=29.866, p<.001$ ).

4단계에서 의치 장착 후 저작효과 기대에서 '아주 좋아진다' ( $\beta=.317, p<.001$ )와 하악 잔존 치아수 '7-9개' ( $\beta=.251, p<.001$ ), 하악 잔존 치아수 '10개이상' ( $\beta=.215,$

p<.001), 상악 잔존 치아수 '10개이상' ( $\beta=.125$ , p<.05)가 의치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함께 투입된 결과 그 설명력은 24.0%로 증가하였다(F=24.197, p<.001).

5단계에서 의치 장착 후 저작효과 기대에서 '아주 좋아진다' ( $\beta=.312$ , p<.001)와 하악 잔존 치아수 '7-9개' ( $\beta$

$=.257$ , p<.001), 하악 잔존 치아수 '10개이상' ( $\beta=.211$ , p<.001), 상악 잔존 치아수 '10개이상' ( $\beta=.145$ , p<.01),

상악 잔존 치아수 '7-9개' ( $\beta=.108$ , p<.05)가 의치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함께 투입된 결과 그 설명력은 24.9%로 증가하였다(F=20.460, p<.001).

Table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Oral cavity state and Denture satisfaction

step	dependent variable	B	$\beta$	Adjusted R <sup>2</sup>	F
1step	After replacing the dentures, Expect the effects of chewing(0=Have never played, 1=very improve)	.457	.369***	.133	46.102***
2step	After replacing the dentures, Expect the effects of chewing(0=Have never played, 1=very improve)	.454	.366***	.188	35.046***
	mandibular surviva teeth(0=no teeth, 1=7-9EA)	.336	.240***		
3step	After replacing the dentures, Expect the effects of chewing(0=Have never played, 1=very improve)	.421	.340***	.228	29.866***
	mandibular surviva teeth(0=no teeth, 1=7-9EA)	.365	.261***		
	mandibular surviva teeth(0=no teeth, 1=10EA under)	.790	.207***		
4step	After replacing the dentures, Expect the effects of chewing(0=Have never played, 1=very improve)	.392	.317***	.240	24.197***
	mandibular surviva teeth(0=no teeth, 1=7-9EA)	.351	.251***		
	mandibular surviva teeth(0=no teeth, 1=10EA under)	.818	.215***		
	maxillary surviva teeth(0=no teeth, 1=10EA under)	.314	.125*		
5step	After replacing the dentures, Expect the effects of chewing(0=Have never played, 1=very improve)	.386	.312***	.249	20.460***
	mandibular surviva teeth(0=no teeth, 1=7-9EA)	.359	.257***		
	mandibular surviva teeth(0=no teeth, 1=10EA under)	.803	.211***		
	maxillary surviva teeth(0=no teeth, 1=10EA under)	.366	.145**		
	maxillary surviva teeth(0=no teeth, 1=7-9EA)	.141	.108*		

\*:p<0.05, \*\*:p<0.01, \*\*\*:p<0.001

### 3. 의치 보관 실태와 멸균방법에 따른 의치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

의치 보관 실태와 멸균방법에 따른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가 다중공선성의 기준이 r=.80 미만이었고 분산팽창계수는 1.00-1.236, Durbin-Watson 계수는 1.402이므로 독립변수 간에 자기회귀 현상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올바른 의치보관방법중 '세정제에 담근다', 올바른 의치멸균방법중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소독한다', 올바른 의치멸균방법 '시중 가그린에 담근다' 등이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올바른 의치보관방법중 '세정제에 담근다' ( $\beta=.507$ , p<.001)가 의치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4%로 나타나 의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F=101.261, p<.001)(Table 3).

2단계에서 올바른 의치보관방법중 '세정제에 담근다' ( $\beta = .362, p < .001$ ), 올바른 의치멸균방법중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소독한다' ( $\beta = .359, p < .001$ )가 의치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6.0%로 나타나 의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F=83.848, p < .001$ ).

3단계에서 올바른 의치보관방법중 '세정제에 담근다' ( $\beta$

$= .390, p < .001$ ), 올바른 의치멸균방법중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소독한다' ( $\beta = .334, p < .001$ ), 올바른 의치멸균방법중 '잘 닦기만 한다' ( $\beta = -.142, p < .003$ )가 의치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7.8%로 나타나 의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F=60.526, p < .001$ ).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Storage conditions, sterilization methods and Denture satisfaction

step	dependent variable	B	$\beta$	Adjusted R <sup>2</sup>	F
1step	How to keep proper dentures(0=Put them in the water, 1=Put them in the mouthwash)	.661	.507***	.254	101.261***
2step	How to keep proper dentures(0=Put them in the water, 1=Put them in the mouthwash)	.472	.362***	.360	83.848***
	The correct method of sterilization dentures (0=brushing, 1=Regular dental visits disinfection)	.464	.359***		
3step	How to keep proper dentures(0=Put them in the water, 1=Put them in the mouthwash)	.509	.390***	.378	60.526***
	The correct method of sterilization dentures (0=brushing, 1=Regular dental visits disinfection)	.432	.334***		
	The correct method of sterilization dentures (0=brushing, 1=Put them in the Listerine®)	-.683	-.142**		

\*:p<0.05, \*\*:p<0.01, \*\*\*:p<0.001

4. 저작효과 인식에 따른 의치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

저작효과에 대한 인식에 따른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이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가 다중공선성의 기준이  $r=.80$  미만이었 고 분산팽창계수는 1.00-1.134, Durbin-Watson 계수는 .934이므로 독립변수 간에 자기회귀 현상이 존재하지 않 음이 확인되어 다중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저작효과대처 방안중 '치과를 방문 해서 수정한다', 저작효과 증진방법중 '음식을 오래 잘 씹는다', 저작효과 결정원인중 '의료진의 능력' 등이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서 저작효과대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가정에서 타도구로 수정)( $\beta = -.227, p < .001$ )중 '치과를 방문 해서 수정한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설명력은 4.8%로 나타나 의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

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F=15.941, p < .001$ ) (Table 4).

2단계에서 저작효과대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가정에서 타도구로 수정)( $\beta = -.242, p < .001$ ), 저작효과대 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적용될 때까지 참는다)( $\beta = -.145, p < .05$ )중 '치과를 방문해서 수정한다'가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6%로 나타나 의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F=11.396, p < .001$ ).

3단계에서 저작효과대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가정에서 타도구로 수정)( $\beta = -.252, p < .001$ ), 저작효과대 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적용될 때까지 참는다)( $\beta = -.156, p < .05$ ), 저작효과대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주위 무자격자를 찾는다)( $\beta = -.154, p < .05$ )중에서도 '치과를 방문해서 수정한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8.7%로 나타나 의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F=10.295,$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Recognizing the effects of chewing and Denture satisfaction

step	dependent variable	B	$\beta$	Adjusted R <sup>2</sup>	F
1step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Get tools to fix at home)	-.514	-.227***	.048	15.941***
2step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Get tools to fix at home)	-.548	-.242***	.066	11.396***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Be adapted until the dree)	-.293	-.145*		
3step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Get tools to fix at home)	-.570	-.252***	.087	10.295***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Be adapted until the dree)	-.315	-.156**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Find the unqualified ruler)	-.527	-.154**		
4step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Get tools to fix at home)	-.574	-.254***	.104	9.551***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Be adapted until the dree)	-.326	-.161**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Find the unqualified ruler)	-.542	-.158**		
	How to promote the effect of chewing(0=As long as you chew, 1=Soft chew your food)	-.178	-.143**		
5step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Get tools to fix at home)	-.500	-.221***	.134	10.134***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Be adapted until the dree)	-.319	-.158**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Find the unqualified ruler)	-.535	-.156**		
	How to promote the effect of chewing(0=As long as you chew, 1=Soft chew your food)	-.247	-.199***		
	How to promote the effect of chewing(0=As long as you chew, 1=Chew your food and fibre)	-.420	-.192***		
6step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Get tools to fix at home)	-.505	-.223***	.144	9.274***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Be adapted until the dree)	-.334	-.165**		
	It's hard to when chewing(0=Visit your dentist, 1=Find the unqualified ruler)	-.591	-.173**		
	How to promote the effect of chewing(0=As long as you chew, 1=Soft chew your food)	-.242	-.195***		
	How to promote the effect of chewing(0=As long as you chew, 1=Chew your food and fibre)	-.396	-.181**		
	Chewing well contributed to dentures(0= excellence medical treatment, 1=oral cavity stipulation)	.143	.115*		

\*:p<0.05, \*\*:p<0.01, \*\*\*:p<0.001

$p < .001$ ).

4단계에서 저작효과대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가정에서 타도구로 수정)( $\beta = -.254, p < .001$ ), 저작효과대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적응될 때까지 참는다)( $\beta = -.161, p < .01$ ), 저작효과대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주위 무자격자를 찾는다)( $\beta = -.158, p < .01$ ), 저작효과 증진방법(0=음식을 오래 잘 씹는다, 1=연한음식물을 씹는다)( $\beta = -.143, p < .01$ )중에서도 ‘치과를 방문해서 수정한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0.4%로 나타나 의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F = 9.551, p < .001$ ).

5단계에서 저작효과대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가정에서 타도구로 수정)( $\beta = -.221, p < .001$ ), 저작효과대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적응될 때까지 참는다)( $\beta = -.158, p < .01$ ), 저작효과대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주위 무자격자를 찾는다)( $\beta = -.156, p < .01$ ), 저작효과 증진방법(0=음식을 오래 잘 씹는다, 1=연한음식물을 씹는다)( $\beta = -.199, p < .01$ ), 저작효과 증진방법(0=음식을 오래 잘 씹는다, 1=섬유질음식물을 씹는다)( $\beta = -.192, p < .01$ )중 ‘치과를 방문해서 수정한다’와 ‘음식을 오래 잘 씹는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3.4%로 나타나 의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F = 10.134, p < .001$ ).

6단계에서 저작효과대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가정에서 타도구로 수정)( $\beta = -.223, p < .001$ ), 저작효과대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적응될 때까지 참는다)( $\beta = -.165, p < .01$ ), 저작효과대처(0=치과를 방문해서 수정, 1=주위 무자격자를 찾는다)( $\beta = -.173, p < .01$ ), 저작효과 증진방법(0=음식을 오래 잘 씹는다, 1=연한음식물을 씹는다)( $\beta = -.195, p < .001$ ), 저작효과 증진방법(0=음식을 오래 잘 씹는다, 1=섬유질음식물을 씹는다)( $\beta = -.181, p < .01$ ), 저작효과 결정원인(0=의료진의 능력, 1=본인의 구강조건)( $\beta = .115, p < .05$ )중 ‘치과를 방문해서 수정한다’와 ‘음식을 오래 잘 씹는다’, ‘본인의 구강조건’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4.4%로 나타나 의치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F = 9.274, p < .001$ ).

#### IV. 고 찰

의치장착 환자가 증가하고 의치 자가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강질환에 쉽게 노출됨으로 다양한 영양분 섭취가 어려워지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소화계통 질환과 더 나아가 전신질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구강 건강 유지를 위해 노인 의치 자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들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함이 중요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노인에게 가장 대표적인 구강 문제 중의 하나가 치아상실이며 이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위해 국가에서 201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 중 의치 필요자를 대상으로 무료의치 사업을 실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총의치(완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노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고령화 사회에서는 의치 자가관리와 만족도에 관련한 노인의 건강이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의 구강건강은 대인관계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한 발음 및 외모뿐만 아니라 전신건강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섭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에서 구강건강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치를 장착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의치와 관련한 구강건강상태와 의치 자가관리 인식 및 주관적 저작능력이 의치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의치와 관련한 자가관리 인식은 상악잔존 치아 수, 저작효과 기대, 1년 치과 방문 수 등에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김영숙 등(2002)은 경제상태가 노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므로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과 의료 및 기본적인 용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통합된 노인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강상태와 자가관리 인식 및 주관적 저작능력과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치 장착 후 저작효과 기대가 좋을수록, 상·하악 잔존 치아수가 많을수록 의치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이가령(2009)의 노인들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식경험영구치수, 잔존치아 수 및 음식섭취 시 의치사용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의치 보관 실태와 멸균방법에 따른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의치 세정제에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소독하고, 스스로 의치세척을 잘 하는 경우가 의치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권영옥(2013)의 연구에서 틀니 닦는 방법, 의치세정제 사용여부에 따라 의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저작효과 인식에 따른 의치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치과를 방문해서 의치를 수정하고, 음식을 오래 잘 씹어서 섭취하며, 본인의 구강조건에 따라 의치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익준 등(2006)의 연구에서 의치만족도는 노인의 주관적 구강건강상태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Wilson과 Cleary(1995)는 구강증상이 구강기능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주관적인 구강건강상태를 결정하며, 이를 통하여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여 의치장착 노인들에서 의치는 구강증상 및 구강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의치사용자에 대해 의치 관리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의치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인의 의치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다. 또한 의치만족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의치 만족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회·경제학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련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의치만족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구강상태 및 의치보관 실태와 멸균방법, 저작효과에 대한 인식 등은 구강건강과 저작효과 및 의치장착 환자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치장착 환자의 의치 자가관리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고, 구강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치 장착 환자의 의치 자가관리 방법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시각에서 치과의료 기관과 의치 장착 환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노인 의치사용자에 대해 의치 관리법에 대한 지속적인 구강보건 교육을 통하여 의

치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노인의 의치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대상자가 대구·경북 지역의 일부 의치환자를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관계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할 수 없겠다. 이에 앞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 추출을 통한 전국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 연구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현재 자신의 구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이고 정확성에서 본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일관성이 존재하여 연구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의치환자의 자가관리와 주관적 저작능력을 알아보고 의치환자의 구강건강을 위한 방법과 교육개발로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대구·경북 지역의 일부 의치환자를 대상으로 2012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면접 설문 조사하였으며, 최종 수합된 295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많았고, 연령은 '70~74세'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초등졸', 직업은 '무직',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 치료비 부담자는 '본인', 상·하악 잔존 치아수는 '4~6개', 저작효과 기대에서는 '아주 좋아진다'가 가장 많았다.

2. 의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의치 장착 후 저작효과 기대, 상·하악 잔존 치아수 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의치 만족도를 24.9%로 설명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3. 의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올바른 의치보관방법, 올바른 의치멸균방법 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의치 만족도를 37.8%로 설명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의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의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저작효과대처, 저작효과 증진방법, 의치저작효과결정원인 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의치 만족도를 14.4%로 설명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 REFERENCES

- Chang IJ, Jeong SH, Park YA, Lee HK, Song KB. Association between denture satisfaction and perceived oral health among the elderly with removable denture.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30, 360-369, 2006.
- Choi YH.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residual teeth and masticatory function.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2008.
- Gwon HS. Oral Health Education. Cheong-gu Publisher, 2007.
- Kim SH, Lim SA, Park SJ, Kim DK. Assessment oral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the Oral Health Impact Profile(OHIP).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28, 559-569, 2004.
- Kim YS, Suh KH. Living Arrangement, Satisfaction with Living, and Depression among the Korean Elderly. *Korea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18, 273-290, 2002.
- Kwon YO. The Impact of Artificial Denture Satisfaction on the Elderly's Quality of Life Related to Oral Health.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and Health Yeungnam University, 2013.
- Lee GR. Relationship between Denture Satisfaction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in Rural area.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Daegu Haany University, 2009.
- Locker D, Matear D, Lawrenc H. General health status and changes in chewing ability in older Canadians over seven years. *J. Public Dent*, 62, 70-77, 2002.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2012.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ransition of population, 2010.
- Richmond S, Chestnutt I, Shennan J, Brown B. The relationship of medical and dental factor to perceived oral and general health. *Community Dent Epidemiol*, 35, 89-97, 2007.
- Seung JH. Analysis of the Realities of Oral Health and Related Factors for the Elderly.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2004.
- Wilson I.B, Cleary PD. Linking Clinical Variables With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3(1), 59-65, 1995.
- Won YS. The relationship of oral state and dietary habit to health condition among.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3.
- Yu SH. A study on denture satisfaction and oral health relate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with removable denture,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2008.